



2018년 6월 24일(제881호) 성 요한 세례자 탄생 대축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이 이기기 대체 무엇이 될 것인가?”

어느 부모든 자식이 잘 커주어서 훌륭한 인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불가능할 것이라고 여겼던 임신이라는 축복을 받은 노부부. 그토록 어렵게 얻은 금 덩어리보다 귀한 아기 요한을 보면서 아기에게 펼쳐질 기구한 미래를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요한을 태중에 품은 늙은 엘리사벳,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생명을 지켜보면서 기대 가득했던 즈카르야. 하느님께서 주신 자식이니, 하느님께서 크게 쓰실 것이라는 생각에 벅찬 가슴 쓸어 내리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모르긴 해도 적지 않은 인간적이면서 긍정적인 기대를 감출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세례자 요한의 어린 시절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감추어진 어린 시절을 짐작해보고자 합니다. 세례자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결코 부럽지도 않은, 결코 흉내조차 내고 싶지 않은 삶과 죽음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결 같은 세례자 요한의 의지와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우리는 간단히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인물이니 그리도 비범했고 당당했고 흔들림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하느님의 은총과 보호도 있었겠지만 분명 세례자 요한의 삶에 그의 부모들의 힘이 컸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두 노부부는 아이를 위해 기도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삶으로 가르쳤으리라 봅니다. 당신께서 주신 자식이니 당신 뜻대로 당신의 도구로 성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요한의 자의식 역시 모양새를 만들어갔을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죄에 물들어 있는지를 볼 수 있었고, 이러한 죄로부터 모두가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결론까지 이르렀을 것입니다. 이런 아들이 광야로 나가겠다는 말을 했을 때, 부모들은 그 아들의 마음이 옳은 것이었기에 차마 막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 어느 부모든 자식이 잘 커주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진짜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먼저 하느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커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세상의 어리석은 잣대로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지 말고, 죽음도 넘어서는 행복한 길을 가르쳐야 합니다.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길, 그 길은 부모의 간절한 기도로부터 시작되고 만들어짐을 믿어야 합니다. 자녀를 의탁하기에 하느님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홍승호(베드로) 신부
맹호(육군 수기사) 성당 주임

- 제 1 특 시** 이사 49,1-6
- 회 답 송** ◎ 오묘하게 지어 주신 이 몸,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 제 2 특 시** 사도 13,22-26
- 복음 관호송** ◎ 알렐루야
○ 아기야,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예언자 되어
주님에 앞서 그분의 길을 준비하리라. ◎
- 특 음** 루카 1,57-66.80
- 영 성 제 송** 우리 하느님이 크신 자비를 베푸시니, 떠오르는 태양이 높은 데서 우리를 찾아오셨네.

한국의 성인 복지 124위

권상연 야고보



성인명: 권상연 야고보 (權尙然 James)

신분: 양반, 순교자

활동연도: 1751-1791년

권상연(權尙然) 야고보(Jacobus)는 1751년 진산의 유명한 학자 집안에서 태어났다. 본디 그는 학문에 정진해 오고 있었으나, 고종사촌인 윤지충 바오로에게 천주교 교리를 배운 뒤에는 기존의 학문을 버리고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여 입교하였다. 그때가 1787년 무렵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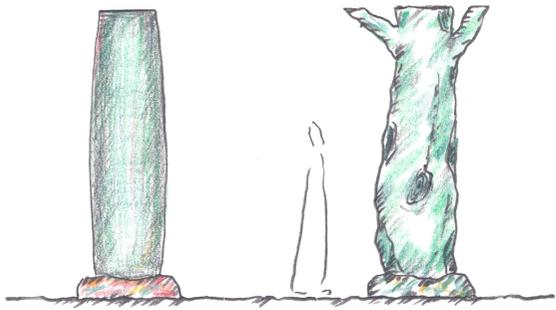
1790년 북경의 구베아(A. Gouvea, 湯士選) 주교가 조선 교회에 제사 금지령을 내리자, 윤 바오로는 권 야고보와 함께 이 가르침을 따르려고 집 안에 있던 신주(죽은 사람의 위패)를 불사랐다. 신주를 불사르고, 전통 예절에 따라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는 소문은 얼마 안 있어 널리 퍼지기 시작하였다. 결국 '윤지충과 권상연을 체포해 오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체포령 소식을 들은 윤 바오로는 충청도 광천으로, 권 야고보는 충청도 한산으로 피신하였다. 그러자 진산 군수는 그들 대신 윤 바오로의 숙부를 감금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전해 들은 그들은 곧바로 자수하였다. 그때가 1791년 10월 중순경이었다.

진산 군수는 먼저 그들을 달래면서 천주교 신앙을 버리도록 권유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천주교가 진리임을 역설하면서 '절대로 신앙만은 버릴 수 없다'고 대답하였다. 여러 차례의 설득과 회유가 있었음에도 그들의 태도가 조금도 변하지 않자, 전주 감영으로 이송토록 하였다. 전주에 도착한 윤 바오로와 권 야고보는 이튿날부터 문초를 받기 시작하였다. 전라 감사는 그들에게서 천주교 신자들의 이름을 얻어 내려고 갖은 방법을 다 썼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들은 신앙을 굳게 지키면서 교회나 교우들에게 해가 되는 말은 절대로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윤 바오로와 권 야고보는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천주를 큰 부모로 삼았으니, 천주의 명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는 결코 그분을 흠송하는 뜻이 될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전주 감사는 할 수 없이, 그들에게서 최후 진술을 받아 조정에 보고하였다. 결국 임금은 이러한 대신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그들의 처형을 허락하였다. 사형 판결문이 전주에 도착하자, 감사는 곧 윤 바오로와 권 야고보를 옥에서 끌어내 전주 남문 밖으로 끌고 갔다. 그들은 '예수, 마리아'를 부르면서 칼날을 받았으니, 그때가 1791년 12월 8일(음력 11월 13일)이었다. 먼저 칼날을 받은 윤 바오로가 32세였고, 권 야고보는 40세였다.

윤 바오로와 권 야고보의 친척들은 9일 만에 관장의 허락을 얻어 순교자들의 시신을 거둘 수 있었다. 이때 그들은 그 시신이 조금도 썩은 흔적이 없고, 형구에 묻은 피가 방금 전에 흘린 것처럼 선명한 것을 보고는 매우 놀랐다. 이후 교우들은 여러 장의 손수건을 순교자들의 피에 적셨으며, 당시 병으로 죽어 가던 사람들이 이 손수건을 만지고 나온 일도 있었다고 한다.

복 음 록 상



- 베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기둥세우기

"반듯하고
성해 보이는
목재도 많은데,
옹이투성이에
허리도 휘고..
장작으로 쓰면
딱 좋을 녀석들
왜 기둥으로 세운거요?"

"모르는 소리
멋이 있잖아. 멋이"

멋을 아는 이가
나를 세웠다.

상화이야기

메디치 경당



본 경당의 한쪽 면을 장식하고 있는 것은 줄리아노 데 메디치로, 갑옷을 입고 지휘봉을 무릎에 올려놓은 채로 마치 곧 의자에서 일어나 전쟁으로 행군하려는 것처럼, 능글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르네상스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미(美)가 고스란히 반영된, 근육이 발달하고 아름다운 젊은 청년의 모습이다.

정교하게 장식된 갑옷은 관객들이 보지 못할 뒷면도 장식하고 있다.



어떤 이는 이것이 활기차고 능동적인 삶(active life)을 상징한다고 설명하는데, 이는 다음 주에 소개될 로렌조 데 메디치의 은둔적인 삶과 대조되어 설명된다.

그 아래 석판에는, 낮(여성)과 밤(남성)이 의인화되어 조각이 되어 있는데, 이 조각은 의도적인지는 모르겠으나, 미완성으로 남아있다.

두 인물 모두 극도로 몸이 뒤틀려 있는 모습인데, 낮(여성)이 기대어 앉은 마스크(연극용으로 보인다)가 미켈란젤로의 자화상이라는 설도 있다.



김은혜(웹리사벗)

교 구 소 식

군중후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성 요한 세례지 탄생 대축일 : 복음 이재경 신부

◆ 교구장 동정

- 방패(수방사) 성당 사목방문
 때: 6월 24일(주일)

◆ 군중교구 '잇숨 생기대' 단원모집

대상: 성가를 통한 군선교에 관심있는 청·장년 (군 자녀 및 가족 포함)
 정기연습: 매주 화 20:00, 용산 군중교구청
 문의: 홍민영 비비안나 010-3837-5039

“군 복음회, 번함없는 열정으로” - “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 16,15)